



Original Article

Marriage Expectation and related Factors among College Students

Lee, Sung-Hee¹⁾

1)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대학생의 결혼 기대와 영향요인

이 성 희¹⁾

1)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was to identify marriage expectation and related factors among college students. **Method:** Data was collected by questionnaires from 329 college students in K university in Daegu. The data was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sult:** Marriage expectation among college student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gender, age and opportunities for employment. Marriage expectation among college students correlated with sex role attitudes. Significant predictors influencing marriage expectation were age, opportunities for employment, mother's job, and sex role attitudes. A combination of these predictors accounted for 10.3% of the variance in marriage expectation. **Conclusion:** These findings show that marriage expectation is influenced by age, opportunities for employment, mother's job, and sex role attitudes. Therefore when nursing interventions are developed to improve marriage expectation, these factors need to be considered.

Key words : Marriage, Virtue

서론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의 여러 원인 중 미혼 남녀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는 여성 취업증가, 성역할 가치관 등의 변화로 인해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에 대한 요구는 높아진 반면 남녀 양성간의 올바른 이해와 교육의 부재로 상호 존중하는 양성평등적 의식이 부족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Presidential Committee on Ageing and Future Society, 2006).

실제로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의하면 2005년도 현재 54.5%에 달하는 여성이 노동 시장에 진출해 있으며 그 중 기혼 취업 여성의 비율은 49%로 미혼 여성과 비슷한 수준이다(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6). 이처럼 기혼여성의 사회활동의 기회는 점차 커져 감과 동시에 성역할 의식 또한 근대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남성들의 성역할 의식과 사회의 가치규범은 상대적으로 전통적 태도에 머물러 있어(Kim & Park, 2005) 결혼 생활에서 여성의 역할과중과 이로 인한 역할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성역할에 대한 남편과 아내의 태도 차이는 결혼 후 가정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중요한 갈등요인

투고일: 2008. 4. 25 1차심사완료일: 2008. 6. 1 최종심사완료일: 2008. 6. 9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Lee, Sung-Hee(Corresponding Author)

College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101, Dongin-2ga, Jung-gu, Daegu 702-422, Korea

Tel: 82-53-420-4935 Fax: 82-53-423-5361 E-mail: leesh@knu.ac.kr

이었고(Yang, 1996), 결혼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쳤으며(Yoon, 1997), 최근의 미혼 남녀의 변화된 결혼관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과 깊은 관련이 있어, 성역할 태도가 근대적인 여성일수록 결혼의 당위성이 낮음(Goldschneider & Goldschneider, 1992)을 알 수 있었다. 즉,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성역할 태도와 관련된 사실을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여성의 성역할 태도가 근대적인 성향으로 변화된 것과 관련된 문제인데, 일관성 있게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갖는 여성은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진 여성에 비해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 자녀를 많이 갖지 않는다. 둘째, 남성이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질수록 실제로 자녀를 많이 두며 자녀 양육에 더 많이 참여한다.

그러므로 미혼 남녀의 결혼 기대 증진을 위해서는 성역할 태도가 결혼기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우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 기대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학생이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전체 생애 주기에서 볼 때 보통 청년기에 직업을 선택하고 미래의 배우자에 대한 가능성을 탐색하며, 남성으로서 혹은 여성으로서 자신이 미래에 담당할 역할을 수용할 준비를 하게 되기 때문이다(Lee & Mun, 2000). 또한 청년기 이전에는 가정 내 역할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 시기이고, 청년 이후의 시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성역할 태도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이미 많은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등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울러 성역할 태도 이외에 대학생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관련있는 요인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 선행연구에서는 사회 인구학적 변인 중에서 연령, 취업에 대한 전망, 이성관계의 질을 제시하고 있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취업에 대한 전망이 밝을수록, 이성관계의 질이 좋을수록 결혼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가족체계도 중요한 요인으로 들고 있는데, 가족체계 중에서 특히, 부모의 이혼과 별거 경험이 결혼 기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한다(Lee et al., 2005). 한편 한 사람의 결혼 기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고 요인 간에 서로 영향을 주기도 하므로 몇 개의 요인만으로 결혼 기대를 설명하기는 힘들다고 하는 주장도 있으나(Jeon, 2005), 이를 달리 해석하면 결혼 기대와 관련된 좀 더 영향력 있는 요인을 점차적으로 찾아가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성역할 태도만을 다루었거나(Yoon, 1997; Kim & Park, 2005; Lee, 2006), 일부 연구에서 청년기 혹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결혼에 대한 기대를 다루긴 하였으나(Lee, 2003; Whaung, 2004; Jeon, 2005) 결혼 기대 정도만을 다루었고, 관

련 요인에 대한 보고는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결혼 기대에 대한 설명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결혼 기대에 영향하는 요인을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결혼 기대 정도와 영향 요인을 알아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대학생을 위한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1. 연구 문제

-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혼 기대 정도를 알아본다.
- 대학생의 결혼 기대와 성역할 태도 정도를 알아본다.
- 대학생의 결혼 기대와 성역할 태도와의 관계를 알아본다.
- 대학생의 결혼 기대에 영향하는 요인을 알아본다.

2. 용어 정의

1) 결혼 기대

결혼 기대는 결혼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인지적, 신체적, 관계적으로 현재의 상황에서 더 향상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Kim(1999)의 결혼기대척도(Marriage-expectation scale)에 의해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2) 성역할 태도

성역할 태도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개인의 생각, 감정, 의도 등을 의미함과 동시에 개인의 역할 또는 그 역할의 수행과 관련된 기대와 규범을 의미한다(Bohannon & Blanton, 1999). 본 연구에서는 Osmond와 Martin(1975)의 성역할태도 검사를 Whaung(2004)이 번안 수정한 가정 내 성역할 태도검사(Sex role attitude scale)에 의해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대구시 소재 일 대학교에 재학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는 의도적 표집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를 위한 예비조사는 2007년 4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연구자의 수업을 듣는 K대학교 간호대학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예비조사 결과 사용하고자 하는 질문지의 문항에 문제가 없어 본 조사에 그대로 이용하였다.

본 조사를 위하여 2007년 5월 4일부터 6월 22일까지 대구시 소재 K 대학교 총학생회의 협조를 구하여 훈련된 연구 보조원 2명이 각 단과대학 건물 앞에서 설문지를 배포한 후 자

기 기입식으로 작성하게 한 후 회수하였다. 질문지 배포와 회수에 소요된 기간은 단과 대학별로 2일이었으며 인문대학을 포함한 13개 단과 대학의 총 40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352부를 회수하였고 회수율은 88%이었다. 참여율과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설문지를 완성한 사람에게는 기념품을 제공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가운데 응답이 부실하거나 누락된 문항이 있는 23부를 제외하고 전체 329부의 자료가 최종 분석 자료로 이용되었다.

Tabachnick과 Fidell(1989)는 회귀분석을 위한 최소한의 표본 크기로 투입 변수수의 40배를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의 대상자 329명은 이러한 기준에 의한 최소한의 표본수 160명 보다 큰 크기였다.

2. 측정도구

1) 결혼 기대

결혼 기대는 Kim(1999)의 결혼기대척도에 의해 측정되었다. 이 도구는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각 문항 당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기대가 높음을 의미하였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인지적, 신체적, 관계적으로 현재의 상황에서 더 향상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높음을 의미하였다. 이 도구의 개발 당시 Cronbach's α 는 .89였고 Jeon(200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5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9이었다.

2) 성역할 태도

성역할 태도는 Osmond와 Martin(1975)의 성역할 태도 검사 중에서 Whaung(2004)이 번안 수정한 가정내 성역할 태도검사로 측정하였다. Whaung(2004)이 번안 수정한 가정내 성역할 태도 검사는 전체 9문항으로서 여성과 남성의 가정역할에 대한 태도를 주로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각 문항 당 '매우 그렇다'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5점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역할 태도가 근대적임을 의미하였다. 가정내 성역할 태도가 근대적이라는 것은 남편과 부인의 역할 내용을 성에 의해 고정시키지 않고 융통성에 두어 함께 수용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을 말하며, 반대의 개념으로 역할이 양극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전통적 태도라 한다(Osmond & Martin, 1975). 본 도구의 문항 중 8번 문항은 역산하였다. 총 9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아이젠 값이 1이상에서 1요인으로 구분되었고 Cronbach's α 는 .81이었으며(Whaung, 2004),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3이었다.

3.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혼 기대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와 ANOVA를 이용하였고, 대학생의 결혼 기대와 성역할 태도 정도는 평균비교로 분석하였다.
- 대학생의 결혼 기대와 성역할 태도와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고, 결혼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설명력을 구하기 위하여 위계적 중회귀 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혼 기대

대상자의 성별을 보면 "남자"가 180명(54.7%)이었고, "여자"가 149명(45.3%)으로 남자가 더 많았다. 학년을 보면 2학년과 3학년이 62.6%를 차지하였고, 나이를 23세를 기준으로 23세 이하와 24세 이상으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23세 이하가 68.9%로 더 많았다. 이렇게 분류를 한 이유는 대학교 졸업 시점이 23세이고, 졸업 무렵에 취업과 더불어 결혼에 대한 장래 계획을 구체적으로 시작하기 때문이다(Lee & Mun, 2000). 또 어머니 직업이 있는 경우가 44.4%이었으며, 본인의 취업 기회에 대해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63.3%로 가장 많았으나, 적다고 한 경우도 6.7%나 되었다. 대상자의 68.7%가 이성교제를 하고 있었으며 교제를 하고 있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교제 기간을 살펴보면 12개월 이하가 15.4%로 가장 많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혼 기대 점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 취업전망에 따라 결혼 기대 점수의 차이가 있었다. 즉, 결혼 기대 점수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으며 ($t=3.693, p<.001$), 연령이 24세 이상인 경우 23세 이하인 경우에 비해 결혼기대가 더 높았다($t=-2.219, p=.029$), 또 취업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적다고 생각하는 경우보다 결혼 기대가 더 높았다($F=8.140, p<.001$). 그 밖에 학년, 어머니 직업 여부, 이성교제 여부, 그리고 교제기간에 따라 결혼 기대 점수의 차이는 없었다(Table 1). 어머니 직업이 없는 경우와 현재 교제를 하고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 비해 결혼 기대가 더 높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2. 대학생의 결혼 기대와 성역할 태도

대학생의 평균 결혼 기대 점수는 33.1점이었고, 성역할 태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and marriage-expecta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N=329)

Variables	Categories	n(%)	Marriage-expectation M(SD)	t / F	p
Gender	Male	180(54.7)	29.5(4.57)	3.693	.000
	Female	149(45.3)	27.8(4.02)		
Grade	1	47(14.3)	29.3(4.90)	1.562	.199
	2	101(30.7)	28.2(4.37)		
	3	105(31.9)	28.4(4.38)		
	4	76(23.1)	29.4(4.12)		
Age	≤23	228(68.9)	28.4(4.40)	-2.219	.029
	≥24	105(31.1)	29.5(4.35)		
Mother's job	Yes	146(44.4)	28.2(4.73)	-1.897	.059
	No	183(45.6)	29.1(4.09)		
Opportunities for employment	High a	102(31.0)	30.0(4.92)	8.140	.000*
	Moderate b	205(62.3)	28.3(3.99)		
	Low c	22(6.7)	26.7(4.17)		
Current state of dating	Yes	103(31.3)	29.4(3.91)	1.955	.051
	No	226(68.7)	28.4(4.59)		
Duration for dating (Months)**	≤12	51(15.4)	29.5(3.94)	.312	.733
	13-24	23(6.9)	29.0(3.86)		
	≥25	30(9.1)	29.9(4.07)		

* Scheffe ** N=103

도의 평균 점수는 35.7점이었다.

<Table 2> Marriage expectation and sex role attitudes in college students (N=329)

Variables	Marriage-expectation	Sex role attitudes
M±SD	28.7 ± 4.41	35.7 ± 4.52

3. 성역할 태도와 결혼 기대와의 관계

성역할 태도와 결혼 기대는 부적 상관관계에 있었다($r = -.132, p = .017$). 즉, 성역할 태도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 기대 점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Correlations of sex role attitudes and marriage-expectation (N=329)

	Marriage-expectation r(p)
Sex role attitudes	-.132(.017)

4. 대학생의 결혼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학생의 결혼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성별, 연령, 취업 전망과 선행연구에서 차이가 있다고 밝혀진 어머니 직업 여부를 먼저 투입하여 위계적 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가정 충족 여부를 검증하기 위

하여 다중 공선성 진단, 잔차, 특이값을 살펴보았다. 성별에 대한 분산팽창지수가 10이상으로 다중 공선성 확보에 문제가 있어 투입 요소에서 제외시켰다. 그런 다음 분산팽창지수는 모두 1.013에서 1.128로 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또한 Durbin-Watson값이 2.088로 2에 가까웠으므로 자기 상관의 문제도 없었다. 잔차의 가정을 충족하기 위한 검정결과 잔차 평균이 0, 표준 편차 1 이하 범위에 있었으며, 정규분포표에서도 이상적인 분포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Cook's distance값을 살펴본 결과 1.0을 초과한 값이 없어 회귀식의 가정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회귀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이 회귀분석 1단계에서 연령이 24세 이상인 경우($\beta = 1.172, p < .05$), 어머니 직업이 없는 경우($\beta = 1.004, p < .05$), 취업 기회가 보통인 경우($\beta = -1.833, p < .001$), 취업 전망이 어두운 경우($\beta = -3.732, p < .01$)가 결혼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며 이 변수들이 결혼 기대를 9.1% 설명함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이성 교제 여부는 대학생의 결혼 기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계적 회귀분석 2단계에서 성역할 태도를 추가 투입하였을 때 연령, 취업 기회, 이성교제 여부, 그리고 어머니 직업 여부를 통제된 상태에서 결혼 기대에 대한 설명력을 1.2% 증가시켰다. 이 단계에서도 연령이 24세 이상인 경우($\beta = 1.093, p < .05$), 어머니 직업이 없는 경우($\beta = .964, p < .05$), 취업에 대한 전망이 보통인 경우($\beta = -1.693, p < .05$), 취업 전망이 어두운 경우($\beta = -3.763, p < .001$)가 여전히 결혼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었다.

<Table 4> Regression models to predict marriage-
expectation in college students (N=329)

Variables	Standardized beta	
Step1		
Age (≥ 24)	1.172*	1.093*
Mother's job (No)	1.004*	.964*
Opportunities for employment (Moderate)	-1.833***	-1.693*
Opportunities for employment (Low)	-3.732**	-3.763***
Dating(No)	-.832	-.849
Step2		
Sex role attitudes		-.096*
F	5.325***	5.212***
R-square	.091	.103
Adjusted R-square	.074	.083

* $p < .05$, ** $p < .01$, *** $p < .001$

논 의

최근 미혼 남녀의 결혼에 대한 견해는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에는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에 비해 성역할적 양성평등문화가 형성되지 못한 결과 결혼 후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어려움이 증가한 탓도 있다. 이 어려움은 양성 평등적 가족문화 형성을 위한 가치관 교육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를 위해 결혼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기대 증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의 개발에 앞서 결혼 기대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탐색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결혼 기대 점수는 28.7점으로 이는 2005년 서울, 경기 지역 대학생의 결혼 기대점수 29.5점에 비해 다소 낮은 점수이었고(Jeon, 2005), 결혼을 하지 않은 20대 중반의 직장인의 결혼기대 점수 30.3점에 비해서도 낮은 점수이었다. 이는 성인 초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의 발달과업이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보다는 우선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는 것에 더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Yoo, 2004)인 것으로 보이며, 이미 직장을 가진 20대 중반의 미혼 남녀에 비해 결혼에 대한 기대가 높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결혼 기대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어 남학생의 결혼기대 점수가 여학생의 결혼기대 점수보다 더 높았다. 이는 Jeon(2005)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결혼 기대를 조사한 결과 남녀의 차이가 없었다는 것과는 상반된 결과이나, Lee(2007)가 일개 대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결혼 기대를 조사한 결과 남학생의 결혼기대가 여학생의 결혼기대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는 결과와는 일치하는 것이었고,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결혼 제도 및 정서적 안정을 더 추구한다는 연구 결과(Cho, 2007)와도 유사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별 차이의 원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 없으므로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연령에 따른 결혼 기대의 차이도 있어 24세 이상인 대학생의 결혼 기대가 23세 이하인 대학생의 결혼 기대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결혼 기대 또한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Jeon, 2005)와는 일치하는 결과이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낮다는 연구결과(Lee et al., 2006)와는 상반된 결과이었다. 그런데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학생이었고 30대는 없어서 Lee 등(2006)의 연구 대상자인 20세에서 44세의 미혼 남녀 집단과는 차이가 있었다. 즉, Lee 등(2006)의 연구에서는 35세에서 44세의 고연령 미혼 남녀가 결혼에 대한 태도에 있어 가장 부정적이었다. 이는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고연령 미혼 집단이라는 특성을 가진 집단의 태도가 반영된 것이므로, 연령과 결혼 기대와의 관계에 대해 연령대가 다른 본 연구의 대상자로부터 도출된 연구 결과와 비교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연령과 결혼 기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향후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결혼 기대는 취업 기회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즉, 취업에 대한 기회가 많다고 인식할수록 결혼 기대가 높았다. 이 결과는 Lee 등(2006)이 전국의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결혼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 직장을 가지고 있을 경우 결혼 의향이 높았다고 한 것과 일치하였다. 특히 취업은 요즈음의 미혼 남성들이 결혼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의 주된 이유로 보고되고 있어(Lee, 2007), 취업과 결혼 기대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현실적 취업 장려 정책을 배제한 결혼 가치관 증진 중재만으로 결혼 가치관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자의 성역할 태도는 33.1점으로 Whaung(2004)의 연구에서 보고된 대학생의 성역할 태도 점수인 32.6점에 비해 다소 상승하였고, 1992년의 성역할 태도 점수 30.3점(Whaung, 1992)과 비교해도 상당히 증가한 점수이었다. 이러한 점수의 상승에는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 및 취업 증가로 인한 성역할 태도의 근대화가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Kim과 Park(2005)은 여성의 성역할 태도는 점점 근대적으로 변화하는데 남성의 성역할 태도와의 차이는 지속적으로 존재한다고 하였다. 이는 결혼 적응도 측면에서도 매우 우려되는 결과로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Park과 Cho(2002)가 부부의 성역할 태도가 일치될 때 결혼 적응도가 높았다고 하였고,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부부가 부부의 역할 관계를 평등하게 인식할수록 행복한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Olson & Olson, 2000)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의 성역할 태도에 대한 성별 차이는 향후 부부간의 갈등을 예측하게 하므로 남자 대학생의 성역할 태도를 여학생 수준으로 향상시켜 성별 간 차이를 줄이는 목적의 중재 프로그램의 적용이 요구된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 성역할 태도는 결혼 기대와 부적 상관이 있었다. 즉, 성역할 태도가 근대적일수록 결혼에 대한 기대는 낮았다. 이는 미혼 여성의 성역할 태도가 근대적수록 결혼 기대가 낮았다는 연구 결과(Jeon, 2005; Lee, 2007)와 일치하는 결과였고, 실제로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진 여성이 결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적었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으며, 남녀평등에 대한 인식 차이가 미혼 남녀의 결혼 대상자 선정에 영향을 주어 결혼 시기를 늦추고 있다는 보고(Bumpass, 2004)와도 유사한 결과이었다.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성역할 태도와 결혼기대와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결과는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으나, 대체적으로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진 남성이 결혼을 더 많이 선택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Goldscneider & Goldscneider, 1992; Kaufman, 2000). 본 연구에서는 남녀를 구별하여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지 않았으므로 결과 해석의 제한점이 있으나 선행 연구 결과를 근거로 살펴보면 남학생의 성역할 태도를 근대적인 성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결혼기대 상승을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여성의 성역할 태도와 일치하게 되면 성역할 태도에 따른 가정의 갈등요인이 줄어들어 결국 결혼 생활의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측하게 한다. 이에 대한 예측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성별을 구분하여 성역할 태도와 결혼 기대와의 관계를 분석하거나 성별 요인을 제거한 후 성역할 태도와 결혼 기대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결혼 기대를 설명하는 회귀분석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취업 전망이 밝을수록, 어머니 직업이 없을수록,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일수록(점수가 낮을수록) 결혼기대를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모델의 유의성은 좋았으나 ($p < .001$) 결혼 기대에 대한 설명력은 10.3%로 낮았다. 이는 한 사람의 결혼기대를 설명하는데 사회 인구학적 변인과 성역할 태도뿐만 아니라 많은 내·외적 변수들이 존재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실제로 Jeon(2005)이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성별, 경제수준, 데이트 관계의 질, 성관계와 같은 사회 인구학적 변인과 함께 부모 자녀의 응집성과 같은 가족 체계, 그리고 정서적 애착, 독점과 같은 데이트 관계의 질을 들었고 이 모든 변인들을 투입하였을 때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26.6%로 설명한다고 보고 하였다. 또한 Lee 등(2006)이 결혼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며, 남성은 취업 여부, 형제·자매의 이혼·별거 경험들이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반면에, 여성은 취업 여부보다는 부모의 이혼·별거 경험이 결혼에 대한 태도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한 보고를 고려하면 향후 연구에서는 문헌고찰과 선행연구의 검토와 성별을 고려하여 결혼 기대와 관련 있는 다

양한 요인들을 분석에 투입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는 성별에 따른 대학생의 결혼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지 못한 것과 D시의 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체 대학생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때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결혼 기대와 성역할 태도 정도를 알아보고 성역할 태도를 포함한 사회인구학적 요인들이 결혼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조사하였다. 대학생의 결혼 기대 점수는 28.7점으로 20대 중반의 미혼 남녀의 결혼기대 점수 30.3점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었고, 성별로 보면 남학생의 결혼기대점수가 더 높았다, 또한 연령이 24세 이상일 경우, 취업 기회가 많을 경우 결혼 기대가 더 높았다. 또한 성역할 태도 점수는 35.7점으로 1992년과 2004년의 점수에 비해 상승하여 대학생의 성역할 태도가 과거에 비해 근대적으로 변화되고 있었다. 궁극적으로 성별 영향력을 통제된 상태에서 대학생의 연령이 높을수록, 어머니 직업이 없을수록, 취업 기회가 많을수록,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일수록 결혼 기대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대학생의 결혼 기대를 높이기 위해서는 거시적으로는 정부 차원의 취업 기회 확대와 같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미시적으로는 연령이 23세 이하이고, 성역할 태도가 근대적이며, 어머니 직업이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 기대 증진 프로그램 개발부터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본 연구 결과와 제한점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우리나라 대학생의 결혼 기대와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표본의 크기를 확대한 전국적 규모의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 결혼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 자녀 응집성과 같은 가족체계와 데이트 관계의 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성별에 따라 결혼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차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근거하여 결혼 기대 증진 프로그램을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Bohannon, J. R., & Blanton, P. W. (1999). Gender role attitudes of American mothers and daughters over time. *J Soc Psychol*, 139(2), 173-179.
- Bumpass, L. L. (2004). Social change and the American family. *Ann N Y Acad Sci*, Dec 1038, 213-219.

- Cho, E. S. (2007). *The effect of the perceived family strength on marital and family values among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Daegu.
- Goldschneider, F. K., & Goldschneider, C. (1992). Gender roles, marriage, and residential independence. *Sociol Forum*, 7, 679-696.
-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6). *Annual survey on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Unpublished manuscript.
- Jeon, Y. J. (2005). *A study on the family differentiation, quality of dating relationship and marriage-expectation perceived by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Seoul.
- Kaufman, G. (2000). Do gender role attitudes matter? family formation and dissolution among traditional and egalitarian men and women. *J Fam Issues*, 21(1), 128-144.
- Kim, T. H., & Park, J. H. (2005). The effect of gender role attitude on couple ENRICH. *J Fam Relat*, 10(3), 79-106.
- Kim, J. H. (1999). *A study on the process of value-search-comparison on the courtship: Focused on working wo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 Lee, E. A. (2006). The relationship of the middle-aged married men and women's gender-role attitude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Korean J Hum Ecol*, 9(1), 25-42.
- Lee, K. H. (2003). The effect of the accordance of the gender characteristics and sex-role identity on the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career decision barriers. *Korean J Counc Psychother*, 15(2), 353-366.
- Lee, M. J., & Mun, B. S. (2000). A study on the development characteristics of adolescence. *J Phys Growth Motor Dev*, 8(1), 97-107.
- Lee, S. H. (2007, November). *The values of marriage and child of college students*.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conference on the innovative strategies for marriage and fertility, Daegu, Korea.
- Lee, S. S., Jung, Y. S., Kim, H. G., Choi, E. Y., Park, S. G., Cho, N. H., Shin, I. C., Do, S. R., Cho, S. G., & Gang, J. H. (2006). *A survey on the marital and fertility trends in 2005*. Unpublished manuscript.
- Olson, D. H., & Olson, A. K. (2000). *Empowering couples*. Minneapolis: Life Innovations Inc.
- Osmond, M. W., & Martin, P. Y. (1975). Sex and sexism: A comparison of male and female sex-role attitude. *J Marriage Fam*, November, 744-757.
- Tabachnick, B. G., & Fidell, L. S. (1989).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 4th ed.* Needham heights, MA: Allyn & Bacon.
- Park, S. A., & Cho, E. K. (2002). Male gender role and adjustment of Korean men. *Korean J Psychol Soc Issues*, 8(2), 77-103.
- Presidential Committee on Ageing and Future Society. (2006).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eing*.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eing, Seoul, Korea.
- Yang, M. S. (1996). A study on the values of marriage, child and sex role between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Int J Hum Ecol*, 34(2), 161-181.
- Yoo, G. S. (2004). Adults' perceptions of family functions and qualities needs for strong families. *J Korean Home Manag Assoc*, 22(4), 173-180.
- Yoon, G. J. (1997). The impact of gender role attitudes on marital satisfaction of husbands and wives. *J Korean Home Manag Assoc*, 15(4), 221-235.
- Whaung, E. (1992). *A study on sex-role attitudes of the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Whaung, E. (2004).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family-related gender role attitudes: Changes from 1991 to 2002. *J Kor Home Manag Assoc*, 22(1), 77-89.